

Buddhism had tried ways to survive: the monks worked as hanjeung (sauna therapy) monks, medicine monks, and maegol (cremation and burial) monks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government.

The duty of medicine monks, since ancient times in India, were to heal the illnesses of people's bodies and souls through the medical arts, by combining medicine and Buddhist doctrine. Although the purpose of medical acts by monks was proselytization, in terms of doctrine it was a practice of benevolence to save people. Consequently, Buddhist medicine also left a grea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medicine in Asia.

Keywords

medicine monks, Indian medicin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eign monks, proselytization, maegol (cremation and burial) monks, hanjeung (sauna therapy) monks.

✎ 투고일자 2014.3.31 | 심사일자 2014.5.24 | 게재확정일자 2014.6.10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의 종류와 성격

손성필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

- I. 머리말
- II. 국가 및 사족의 편찬 자료
 - 1. 관찬편년사서
 - 2. 법전, 호적, 양안, 의례
 - 3. 지리지와 읍지
 - 4. 문집, 일기, 필기
- III. 불교계 및 승려의 편찬 자료
 - 1. 불교저술과 간행불전
 - 2. 승려문집과 고승비
 - 3. 사찰사적과 사찰문서
 - 4. 기타: 가사, 건축, 미술
- IV. 맺음말

조선시대 불교는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였고 연구도 부진하였다. 이는 근대기에 형성된 조선시대 불교의 부정적 역사상, 교학 발달사 중심의 불교학 연구경향, 단선적 사회발전론에 치우친 역사학 연구경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는 이전 시대에 비해 양적으로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그간 이 다양한 자료들이 연구에 활용되지 않거나 단편적으로 연구돼 왔으며, 각 자료의 성격을 고려한 체계적 분석과 종합적 해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관찬편년사서, 법전, 호적, 양안, 의례, 지리지, 문집, 일기, 필기, 불교저술, 간행불전, 승려문집, 고승비, 사찰사적, 사찰문서 등의 주요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를 분류하고 각각의 성격에 대해 논해 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되 그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해석해야 함을 논한 한편, 자료의 종류와 성격에 대한 이러한 개관적인 분석만으로도 다카하시의 여러 담론을 비롯한 기존의 조선시대 불교사 인식이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불교는 국가의 전면적인 제재를 받았다고도, 사회적으로 무력했다고도, 사상 전통이 단절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웠다. 불교정책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고, 불교계는 조선 사회의 일부로서 사회 변화에 대응하였으며, 기존 불교 전통을 능동적으로 계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다양한 자료를 통한 실증적 연구와 균형 있는 시각을 통해 새로운 조선시대 불교의 역사상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한편, 기존의 조선시대 불교 역사상이 근대기에 형성된 배경과 양상에 대한 연구도 심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가 불교 사상의 전개 뿐 아니라 불교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불교사 자료, 조선시대 불교, 국가, 사족, 불교계, 승려,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

I. 머리말

조선시대 불교는 고대 불교와 고려시대 불교를 바탕으로 형성되었고, 근현대 한국 불교의 토대가 되었다. 조선시대 불교가 고대, 고려시대 불교에 비해 정치·사회·사상적 영향력이 약화된 것은 분명한 듯하나, 조선시대 불교가 고대 및 고려시대의 불교 전통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고, 근현대 한국 불교의 토대가 되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간 고대, 고려시대 불교에 비해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연구는 부진하였다. 이는 조선시대가 불교계가 탄압 받고 불교사상이 쇠퇴한 시기라는 인식이 완고하기 때문인 한편, 단선적 사회발전론에 치우친 역사학 연구경향과 교학 발달사 중심의 불교학 연구 경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연구의 부진은 기존에 형성된 역사상의 무비판적인 답습과 재생산을 초래하였다.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근대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

는데, 그의 저술인 『이조불교(李朝佛敎)』를 통해 포교권 국가탈취설, 승려천인신분설, 승려무지설, 고작성·비독자성설, 무종파설, 신중불교설, 쇠퇴지속설, 명맥유지설, 부녀자·서민신앙설 등의 담론이 유포되었다.¹⁾ 해방 이후에도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종합 연구서가 나오지 못함에 따라, 이러한 담론들은 지금까지도 조선시대 불교를 설명하는데 흔히 쓰이고 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다카하시의 담론을 비롯한 기존의 조선시대 불교사 이해에 여러 한계와 문제가 있음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²⁾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연구나 기존의 역사상에 대한 비판이 당대의 자료를 통한 실증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는 양적으로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고대, 고려시대에 비해 교학 저술의 양과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준 반면, 다양한 불

- 1)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다카하시의 담론은 '식민통치와 일본불교의 관점에 따른 조선불교의 사회적 무능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손성필, 2013a,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동국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pp.4-5).
- 2) 김용태와 이종수는 조선후기 불교계의 敎學 傳統과 三門修學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조선후기의 불교사상이 禪 일변도였다고 이해하는 기존의 불교사 인식을 비판하였다(김용태, 2010,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임제법통과 교학전통』, 신구문화사; 이종수, 2010, 「조선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 三門修學을 중심으로」, 동국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손성필은 여러 불교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조선중기의 불교정책과 불교계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조선시대 불교의 결정론적 쇠퇴론 및 전·후기 구분론을 비판하였다(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또한 『실록』, 법전, 호적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승려가 천인이었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밝히기도 하였다(손성필, 2013c, 「조선시대 승려 賤人身分說의 재검토: 高橋亨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보조사상』 40, 보조사상연구원).

교사 자료가 현존하고 있다.³⁾ 그러나 그간의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 방법은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자료들이 활용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간 주로 활용되어 온 『실록』과 불교저술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⁴⁾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단편적인 해석에 그쳤고,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자료의 내용을 피상적으로 재구성하는 연구 방법이 통용돼 왔다. 이러한 연구 방법의 한계는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가 ‘탄압이나 쇠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가’라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의 역사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못한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⁵⁾

이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의 종류와 성격을 논해 보고자 한다. 우선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를 편찬 주체에 따라 국가 및 사족 편찬 자료와 불교계 및 승려 편찬 자료로 대별하고, 해당하는 자료를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 논할 것이다. 각 자료의 종류와 성격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존 연구방법에 대해 비판하

3) 조선시대의 다양한 불교사 자료의 연구 필요성은 김상현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김상현, 2002, 「朝鮮佛敎史 研究의 課題와 展望」, 『불교학보』 39,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4) 김용태와 이종수, 손성필의 최근 연구 성과에 따르면, 조선시대 불교저술과 『실록』의 불교 관련 기사에 대한 연구가 그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 어렵다(김용태, 2010, 앞의 책; 이종수, 2010, 앞의 논문;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5) 다카하시의 『李朝佛敎』도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는 각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내용을 임의로 인용하고 해석하여 자신의 논지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실록과 문집에 개재된 국가와 사족의 관점, 근대주의와 일본불교의 관점이 혼재한 조선시대 불교의 역사상을 창출해 냈다. 자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결여한 채 자료의 내용들만 임의로 조합함으로써 당대의 역사 현실과는 거리가 먼 역사상, 곧 조선을 식민통치한 근대 일본인의 시선으로 본 조선시대 불교의 역사상을 창출해 낸 것이다(손성필, 2013c, 앞의 논문, pp.67-68). 다카하시의 불교사 연구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논문을 통해 자세히 논할 것이다.

고 최근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거나 추후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기존의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방법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새로운 조선시대 불교 역사상을 함께 모색해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II. 국가 및 사족의 편찬 자료

1. 관찬편년사서

관찬 편년체 사서 또는 연대기는 당대의 불교정책과 집권층의 불교정책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승려와 사찰에 대한 여러 정책적 논의와 조치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국왕과 집권관료층의 인식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실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등이 포함되는데,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는 각각 광해군대, 인조대 이후의 것이 현전하는 데에 비해 『실록』은 조선 전 시기의 것이 현전하고 있어 조선시대 불교정책사의 전개와 변화를 연구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 불교정책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에 더 풍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아직 불교사 연구에 거의 활용되지 않아 온 형편이다.

『실록』은 선왕대의 국정 운영을 정리하여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후세에 전범으로 남기고자 편찬된 것으로, 국정 운영과 양반관료 중심의 역사서다. 유교적, 특히 성리학적 사유에서 역사의식은

종교적 신념에 가까우며, 이를 통해 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왕권을 견제하기도 하였다.⁶⁾ 이처럼 『실록』은 국정 운영에 대한 기사들 양반 관료층의 역사의식에 따라 편찬한 것이므로, 국정 운영과 관련되지 않은 사실은 기록되지 않았고 당대 집권 관료층의 관점이 그 서술에 반영돼 있다.⁷⁾ 이러한 성격은 대체로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 또한 마찬가지나, 『실록』이 한층 더 편집된 역사서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록』은 특정 기사 수록 여부의 취사선택이나 특정 기사의 내용 가감 등을 통해 편찬자의 의도가 개입돼 있을 여지가 훨씬 크다.⁸⁾ 이에 대한 충실한 사료 비판을 통해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비단 불교사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⁹⁾

『실록』의 이러한 성격을 고려할 때, 『실록』에 당대 불교계의 동향이 충실히 기록돼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실록』은 국정 운영을 위해 논의된 사항에 대한 기록일 뿐, 사회 모든 분야의 동향을 망라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록』은 국정 현안으로 제기된

승려 및 사찰 관련 사안에 대한 국왕과 관료의 인식이나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일차적 가치를 지닌다. 국가와 불교의 결속이 공고했던 한편 현전하는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대와 고려시대의 경우, 관찬사서에 크게 의존한 불교사 연구 방법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고대와 고려시대조차도 관찬사서에 당대 불교계 전반의 동향에 대한 충실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와 불교의 결속, 불교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된 조선시대의 경우, 관찬사서를 통해 불교계 전반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려움은 물론이다.¹⁰⁾

그러나 『실록』은 조선시대 불교정책의 전개, 국가와 불교계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자료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교정책의 목적, 배경, 대상, 시행 여부 등을 엄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조선 초기 불교정책의 주요 목적은 국가 재정의 확보를 위해 비대한 승정체제를 개혁하여 그 규모를 줄이는 것이었다. 반면 중종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체제에서 불교적 요소를 모두 제거함으로써 국왕이 모범을 보여 백성과 이단이 저절로 교화되게 하는 정책을 지향하였고 불교계는 사실상 방치 또는 방임되었다. 그러나 명종대에는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15세기의 불교정책으로 복귀하였다가, 선조대에는 다시 교화론적 불교정책을 지향하였다. 하지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승려와 사찰이

6) 한우근, 1988, 「朝鮮前期 史官과 實錄編纂에 관한 研究」, 『진단학보』 65·66, 진단학회; 오향녕, 1999, 「성리학적 역사관의 성립: 초월에서 현실로」, 『조선시대사학보』 9, 조선시대사학회; 김경수, 2002, 「조선전기 실록 편찬에 대한 사학사적 고찰」, 『조선시대사학보』 20, 조선시대사학회.
7) 『실록』의 편찬 태도는 정치·사회적인 변화와 편찬자의 입장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김경수, 1998, 「仁祖實錄」의 편찬 과정과 편찬관, 『충북사학』 10, 충북대 사학회; 오향녕, 2004, 「朝鮮後期 實錄編纂 慣例의 변화」, 『국사관논총』 105, 국사편찬위원회).
8) 영조대의 백두산제 시행 논의 기사를 예로 들면, 『승정원일기』에는 대부분의 신료가 찬성하나 두 명의 신료가 반대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실록』에는 반대한 두 명의 논의 기사만 수록돼 있어 마치 영조가 신료의 반대를 무릅쓰고 백두산제를 강행한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돼 있다(권내현, 2011, 「조선 영조대 백두산제 시행 논쟁」, 『한국인물사연구』 15, 한국인물사연구소).
9) 정구복, 2007, 「사학사적 관점에서 본 광복 후 60년간의 조선시대사 연구성과 검토」, 『한국 역사학의 성과와 과제: 광복 60주년 기념 역사학회 특별 심포지엄』, 일조각.

10) 임진왜란 전의 선조 전기를 예로 들면, 조선시대를 통틀어 이 시기에 전국 지방 사찰의 불전 간행이 가장 활발했으나, 『실록』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없다(손성필, 2013b, 「16세기 사찰판 불서 간행의 증대와 그 서지사적 의의」, 『서지학연구』 54, 한국서지학회).

국가체제 내로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후기에 승려는 백성의 일원으로 여겨졌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것과 달리 국가의 불교정책, 국가와 불교계와의 관계는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고, 그 노선을 두고 정치세력 간에 갈등하기도 하였다.¹¹⁾

『실록』의 불교정책 논의 기사를 분석할 때는, 우선 그 기사들이 정치적 수사(修辭)로 점철돼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중종대의 한 관료는 연산군대 불교정책에 대해 “근년에 사사(寺社)가 모두 철폐되고 승도(僧徒)가 끊어졌다”고 평가하였으나, 실제로 연산군대에는 도성 내의 사찰이 철폐되었을 뿐이고 선교양종이 혁파됨에 따라 승직(僧職)이 제수되지 않았을 뿐이다.¹²⁾ 이러한 정치적 수사를 이해하여 전국의 사찰이 철폐되고 승려가 환속 당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록』은 국정 운영의 관점에서 피지배층을 대상화하고 사회현상을 해석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승려는 일반적으로 국역을 회피하는 집단으로 규정되었고, 승려와 사찰이 줄지 않고 증가하는 현실은 실정(失政)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승려로의 출가를 피역(避役)이라는 목적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승려와 사찰이 줄지 않은 현실을 실정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성리학 이념과 국정 운영의 관점에 따른 위정자의 해석일 뿐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불교정책의 대상이나 시행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조선후기의 불교정책은 주로 승정체제 소속 사찰에 대해 재정 지원, 곧

공전(公田)인 사사전(寺社田), 공노비(公奴婢)인 사노비(寺奴婢)를 감축하거나 혁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불교계 전반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한 것은 아니었다. 불교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이 승정체제 소속 사찰이나 중앙 불교계에 제한된 것이었다면, 불교정책에 따라 불교계 전반이 부침을 거듭했다는 불교사 이해 방식도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¹³⁾ 한편 조선초기에 도첩제는 법제에 규정된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아 지방관에 의해 형식적 행정[文具]로 여겨졌을 뿐이며, 국가의 대대적인 사찰 수색이나 철폐도 이루어진 바 없다. 유일하게 중종 33년(1538) 경기도와 전라도의 신축 사찰에 대한 철폐 조치가 내려지긴 했으나, 이 또한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1,658개의 사찰을 제외한 신축 사찰에 대한 조치였을 뿐이다.¹⁴⁾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승려의 도성출입이 전면 금지됐다고 하는 기존 이해와는 달리, 18세기 말까지 승려의 도성출입 금지가 전면 시행되지 않았고, 숙종·영조대의 승려 도성출입 금지 조치는 사실 도성 주변의 비구니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¹⁵⁾

이처럼, 『실록』을 그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아울러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을 불교사 연구에 적극 활용한다면,¹⁶⁾ 조선시대 불교정책사를 보다 역사 현실에 가깝게 재구성하고, 국

11)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p.50-101; pp.175-214.

12)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51.

13) 15세기의 불전 간행을 예로 들면, 왕실과 관청의 불전 간행은 불교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았으나, 전국 지방 사찰의 불전 간행은 불교정책과 무관한 양상을 보였다(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p.122-123).

14)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15) 손성필, 2013c, 앞의 논문.

16)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은 최근에 와서야 불교사 연구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박세연, 2013, 「17세기~18세기전반 僧軍의 확대와 調發방식의 변화」, 고려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가와 불교계 간의 관계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법전, 호적, 양안, 의례

법전(法典), 호적(戶籍), 양안(量案), 의례(儀軌) 등은 국가의 불교 정책, 국가와 불교계의 관계 등을 고찰하기 위해 연구돼야 할 기본적인 관찬 자료들이나 그간 거의 연구되지 못했다. 조선은 주요 국정 운영방침을 법전으로 편찬해 성문화하였다.¹⁷⁾ 1471년(성종 2)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찬 이후에도 국왕의 전교(傳敎)에 따른 법규 변화에 따라 『대전속록(大典續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수교집록(受敎輯錄)』,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등이 편찬되었고, 이는 『속대전(續大典)』과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으로 집대성되었다. 이 법전들에 승려와 사찰에 대한 법규도 있는데, 이는 『경국대전』을 근간으로 하되 시기에 따라 변화해 갔다. 따라서 법전은 조선시대 불교정책의 성격과 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있는데, 이를 조선조 법규의 성격, 명시적 법규와 묵시적 현실 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함을 물론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법전의 승려와 사찰 관련 규정이 종합적으로 분석된 바 없고, 최근에 와서야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 규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볼 때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가가 승려를 ‘승인(僧人)’과 ‘승니(僧尼)’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이원적인 정책을 펼쳤

다는 점이다. 조선시대의 여러 법전들을 보면 보호 대상인 승려는 ‘승인’으로, 규제 대상인 승려는 ‘승니’로 구분하여 지칭하였다. 『경국대전』이 편찬된 15세기까지 승인은 7품 이하의 문무관에 상응하는 형법적 지위를 보장받았고, 18세기 말까지 공적인 사무[公事]가 있는 승인의 도성 출입은 허용되었다. 반면 도성 주변의 비구니를 비롯한 승니, 곧 하층승려는 규제 대상이었다. 기존의 이해와 달리 승려는 그 성격이나 층위에 따라 보호의 대상이기도, 규제의 대상이기도 했던 것이다.¹⁸⁾ 한편 『신보수교집록』에 의하면 1674년(현종15) 승려의 사유재산은 그의 상좌(上佐)에게 상속할 수 있는 권리도 법제적으로 보장되었는데,¹⁹⁾ 이 또한 승려가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기만 했다고 이해하는 기존의 역사상과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법전은 불교정책의 변화를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호적은 국가의 구역체제와 신분제도 등에 대한 연구자료로 역사학계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 호적에 승려가 다양한 신분(身分)과 직역(職役), 관직(官職)이나 관계(官階)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근래의 일로,²⁰⁾ 아직까지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승려의 호적 등재는 1675년(숙종1) 윤휴(尹鑄)가 건의하였는데, 실제로 다음 식년(式年)인 1678년부터 승려가 호적에 등재되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존하는 단성 호적(丹城戶籍), 대구호적(大邱戶籍), 언양호적(彦陽戶籍) 등에는 승

17) 『경국대전』을 비롯한 조선시대 법전은 국정 운영을 위한 行政法典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박병호, 1974, 『『經國大典』의 編纂과 頒行』,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이성무, 1990, 『『經國大典』의 編纂과 『大明律』』, 『역사학보』 125, 역사학회, p.88).

18) 손성필, 2013c, 앞의 논문, p.75.

19)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207.

20) 장경준, 2006,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 배경과 그 양상」, 『대동문화연구』 5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야마우치 타미히로, 2013, 「건양·광무기 僧籍과 屠漢籍의 성격」, 『한국학연구』 29,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려가 승(僧), 양승(良僧), 양인승(良人僧), 총섭(總攝), 승통(僧統), 승장(僧將), 통정(通政), 가선(嘉善), 역승(驛僧), 사노승(寺奴僧), 사노승(私奴僧) 등등의 다양한 신분과 직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국가의 배척으로 신분이 천인과 같았다는 관념과는 달리, 조선후기에 승려는 다양한 층위로 존재했고 국가체제 내의 한 직역군으로 인정돼 양인과 같이 역역과 부세를 담당하거나 사족과 같이 관직에 제수되기도 하였음을 실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²¹⁾ 그러므로 조선후기 국가와 승려층의 관계, 승려층의 존재 양상 등을 밝히기 위해 호적에 대한 연구가 심화될 필요가 있다.

양안은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 전지(田地)를 측량해 만든 토지대장으로, 경자양안(庚子量案)과 광무양안(光武量案)을 비롯한 다양한 양안이 현존한다. 이 양안 또한 역사학계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료인데, 사찰 및 승려와 관련한 다양한 토지 정보의 경우 아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광무양안을 통해 대한제국기 충주 지역의 사하촌(寺下村)에 대해 논한 연구성과가 있음이 확인될 뿐이다.²²⁾ 양안에는 사찰과 승려의 사유 전지 뿐 아니라 궁방전(宮房田), 사위전(寺位田) 등의 특수 전지에 대한 정보도 등재돼 있으므로, 조선시대 사찰경제의 실상은 물론 국가와 불교계의 관계에 대한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의궤가 편찬되었는데, 그 중 능원(陵園)을 조성하거나 궁전(宮殿)을 수리하는 절차에 대한 의궤에는 역사

에 동원된 승려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²³⁾ 그러므로 이 의궤류들은 조선후기 국가와 불교계의 관계, 승려의 층위와 존재 양상에 대한 연구자료로 가치가 있는데, 그간 승역이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탄압과 착취로 해석됨에 따라 연구가치가 높지 않게 평가되지 못해 온 듯하다. 그러나 관찬편년사서, 법전, 호적 등을 통해 조선시대의 불교정책이 재해석된다면, 승역의 기능과 역할 등도 재해석될 여지가 크다. 한편, ‘의궤(儀軌)’라는 용어 자체가 불교에서 기원한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어 흥미롭다. 의궤라는 용어는 유교 문헌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고 불교 문헌에서 흔히 쓰인 용어라는 것이다.²⁴⁾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추후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조선전기에는 국가와 왕실의 공식적인 불교의례가 빈번히 설행되었다는 점에서 각종 의례가 유교적으로 재편된 뒤에도 ‘의궤’라는 용어는 계속 전승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지리지와 읍지

관·사찰 지리지와 읍지는 국가와 사족의 지방 통치 및 향촌 지배를 위해 편찬된 것으로, 조선의 지리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일 뿐 아니라 국가와 사족의 지리 인식, 지방과 향촌의 통치체제 등에 대한 연구자료라고 할 수 있다. 지리지와 읍지의 ‘불우(佛宇)’ 또는 ‘사찰(寺刹)’ 조에는 당시의 주요 사찰에 대한 정보가 수록돼 있는데, 1481년 편찬

21)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p.206-209.

22) 임용한, 2010, 「대한제국기 충주의 사원전과 사하촌」, 『역사와 실학』 42, 역사실학회.

23) 윤용출, 1998,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출판부, pp.129-172.

24) 신승운, 2009, 「朝鮮 儀軌의 分類와 整理方案 研究」, 『조선왕조 의궤 번역의 현황과 과제』, 한국고전번역원, pp.3-4.

된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편찬된 지리지와 읍지들에도 주요 항목으로서 빠지지 않았다. 사실 조선시대의 사찰은 승려의 수행, 강학, 의례, 사무, 거주 공간이자 신도의 신앙 공간인 동시에, 사족의 유람, 숙박, 독서 공간이자 종이 생산, 서적 간행, 책판 보관 등을 위한 공간이기도 했다. 사족들은 사찰에서 상층 승려와 문학적 교류를 나누기도 하였고, 하층 승려로부터 산수 유람에 노동력을 제공받기도 하였다.²⁵⁾ 사족이 지은 시문에 사찰이 빈번히 등장하는 데서 보듯, 사찰은 조선 사회의 지리 경관에서 중요한 위상을 점했고,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지리지를 통해 조선시대의 주요 사찰 수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1년), 『동국여지(東國輿地誌)』(1660년경), 『여지도서(輿地圖書)』(1760년경), 『조선총독부 통계연보(朝鮮總督府統計年譜)』(1915년)에는 각각 1,658개소, 1,602개소 이상, 1,537개소, 1,401개소의 사찰이 수록돼 있다.²⁶⁾ 이러한 수치를 통해 볼 때 조선중후기에 약 1,500개소 이상의 사찰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지도서』 단묘(壇廟) 조 및 학교(學校) 조에 수록된 서원(書院)의 수 277개소, 조선말기까지 건립된 서원과 사우(祠宇)의 총수 903개소와 비교해 볼 때,²⁷⁾ 더 많은 수의 사찰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

다. 서원이 없는 군현도 많은 반면, 사찰은 독립된 항목으로 편성돼 거의 전 군현에 분포해 있었다. 이는 사찰이 수적으로 많은 지리 경관이었을 뿐 아니라, 조선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중요한 지리 정보 또는 통치 정보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²⁸⁾

『여지승람』과 『여지도서』 사찰 조에 기재된 “금증(今增)”, “금폐(今廢)”와 같은 정보를 통해 볼 때, 사찰은 신축·증창되기도 폐허화되기도 하였다. 이는 법제와 현실이 달랐음을 보여준다. 『경국대전』 사사(寺社) 조에는 사찰의 창건을 금지한다고 하였으나, 사찰은 계속 창건·증창되고 있었다. 서원은 영조 17년(1741)과 고종 8년(1871)에 대대적으로 훼손된 바 있지만, 국가가 사찰을 대대적으로 훼손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²⁹⁾ 각 지리지의 조사 대상과 방법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방법론적 한계가 있지만, 사찰의 총 수는 대체로 16세기 초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큰 증감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사(寺)가 아닌 암(庵)이 차지하는 비율이 10%→16%→32%→47%로 점차 증가하였다는 점은 주목된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암자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18·19세기에 암자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사찰이 규모가 축소돼 암자화되거나 사찰보다는 암

25) 조선 후기 사족의 산수유람과 사찰 이용, 승려 동원에 대해서는 이경순, 2014, 「17-18세기 士族의 유람과 山水空間 인식」, 서강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참조; 명종대에 문정왕후가 陵寢寺刹에 대한 유생 출입을 엄금하고 이를 어긴 자를 엄단하려 하자, 신료들은 ‘조정 대신들 중에 사찰에서 讀書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느냐’라며 반발하였던 당시 사찰은 사족층에게 전일하게 공부하는 데 적합한 장소로 인식되었다(『明宗實錄』 권3, 명종 1년 1월 6일; 권9, 명종 4년 9월 12일; 12월 19일).

26) 이병희, 1997, 「朝鮮時期 寺刹의 數的 推移」, 『역사교육』 61, 역사교육연구회.

27) 정만조가 20세기 초에 편찬된 『增補文獻備考』를 중심으로 조사한 「年代別 祠院의 建

立·賜額 數 一覽表」에 의하면, 조선중후기에 건립된 書院과 祠宇는 총 903개소였으며, 이 중 賜額을 받은 것은 270개소였다(정만조, 1975, 「17~18世紀의 書院·祠宇에 대한 試論」, 『한국사론』 2, 한국사학회, p.263). 이태진은 이 중 서원만을 대상으로 조선중후기 서원의 성격에 대해 논하였다(이태진, 1978, 「士林과 書院」,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28)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p.41-42.

29) 1538년(중종33)에 경차관을 파견해 경기도, 전라도 지역의 신축 사찰을 철퇴하도록 한 것이 유일한 사례인데, 그마저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전국 1,658개 사찰을 제외한 신축 사찰에 한한 것이었다(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p.75-78).

자를 새로 창건한 사례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³⁰⁾

안동지역의 사찰읍지인 『영가지(永嘉誌)』 고적(古跡) 조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15·16세기에는 주로 읍치 주변의 평지 사찰이 폐사되었고 그 자리에 서원이 들어서기도 하였다.³¹⁾ 읍치 주변 공간은 유교화되어 간 한편, 산지가 불교적 공간으로 유지·확장된 변화가 진행된 것이다. 15·16세기에 평지 사찰이 사라져 간 것은 이전에 비해 불교의 정치·사회적 역할이 축소되었음을, 18·19세기에 암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불교계의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의미함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서원·사우의 수를 고려해 보건대, 일반적으로 가장 극심한 불교의 침체기로 이해돼 온 16세기 초에 ‘사(寺)’의 격인 사찰이 전체의 89%인 1,469개소에 이를 만큼 많았고, 조선말기에도 전체의 50% 이상인 745개소에 이를 만큼 적지 않았다. 17세기에 활동한 유형원(1622~1673)은 ‘사찰이 산에 두루 가득하고 승려가 백성의 거반이나 되는 지경이 된 게 백년쯤 되었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³²⁾

이처럼, 조선시대 사찰은 지방 향촌 사회의 주요 경관이었으며, 일방적 탄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이해돼 온 바와 달리 국가, 사족, 백성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역할을 해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구체적 양상에 대한 더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30)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p.42-43.

31) 양혜원, 2005, 「16세기 安東地域 佛教界의 量的 轉變過程과 그 意味」,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석사학위논문.

32) 『礪溪隨錄』 권25, 續篇 上, 僧尼巫覡淫祠.

4. 문집, 일기, 필기

조선사회의 지배층인 사족이 남긴 여러 종류의 글들도 불교사 연구에 유용한 자료다. 한문으로 찬술된 사족의 글들은 크게 ‘정통 한문학’과 ‘비정통 한문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³⁾ 이른바 정통 한문학 문체로는 표·전, 기, 서, 서·발, 행장, 비문, 제문 등이 있는데, 비교적 형식적 규범이 강고하고 성리학적 문이재도론(文以載道論)에 충실한 글쓰기 양식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족층은 이 글들로 서로 교류하고 평가하였으며, 이 글들이 문집(文集)으로 간행됨으로써 그 평가는 죽은 후에도 이어져 후손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정통 한문학은 그 향유층인 사족 사회의 평가를 의식한 글쓰기일 수밖에 없었고, 문집으로 간행되면서 후손과 문인에 의해 선별되거나 개변(改變)되기도 하였다.³⁴⁾ 일정한 자기 검열과 사회적 검열을 거친 후 공표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을 통해 볼 때 사족의 문집에 불교에 관한 풍부한 기록이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³⁵⁾ 조선의 사족층이 불교가 이단이라는 명분을 포기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중후기에 사족 중심 사회가

33) 박희병, 2008,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pp.45-66.

34) 유탁일, 2001, 「한국 옛 문집의 양태와 출판과정」, 『영남지방출판문화논고』, 세종출판사, pp.387-388; 신승운은 1498년 戊午史禍의 전개과정에서 김종직의 『佔畢齋集』이 毀板·火書된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 후일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은 문집에 수록하지 않는 것이 조선사회에 일반화되었다고 보았다(신승운, 1994, 「成宗朝의 文士養成과 文集編刊」,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35) 조선중기의 시인인 권필의 『석주집』 별집 편찬을 예로 들면, 송시열은 『석주집』 별집을 산정하면서 시 600수 중 少時에 戲作한 시, 승려와 수창한 시, 풍자가 심한 시 등을 제외하고 100여 수를 선별하여 편찬하였다고 한다(『石洲別集跋』, 『石洲集』).

형성되면서 문집 간행이 성행하였으나, 시문과 문집은 사족 사회의 지향과 평가를 의식하여 찬술되고 편찬된 것이므로, 사회 전반의 현실을 고루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³⁶⁾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생산된 자료이지만,³⁷⁾ 불교사 연구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불교에 대한 관심이 표명된 문집은 드물며, 특히 재지사족의 문집에서 불교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는 이들의 문집 간행이 향촌에서의 사회적 지위 제고라는 뚜렷한 목적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족의 문집은 그들의 불교 인식의 단편, 불교 관련 사실의 단편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가치가 있다. 예컨대 시문을 매개로 한 승려와의 교류, 고승 비문의 찬술, 사찰로의 산수 유람, 사찰에서의 서적 간행 등의 사례를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불교적 사유나 불교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은 글들이 수록된 문집도 있는데, 허균(1569~1681), 박세당(1629~1703), 김창흡(1653~1722), 최창대(1669~1720), 이덕수(1673~1744), 이하곤(1677~1724), 신유

한(1681~1752), 조귀명(1693~1737), 김도수(1699~1733), 홍대용(1731~1783), 이충익(1744~1816), 김정희(1786~1856) 등의 문집이 현재 알려져 있다.³⁸⁾ 이들은 경화사족, 소론, 실학자, 양명학자, 서얼 등으로 그 성격이 다양하며, 불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도 다양하였다. 이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개인의 이례적인 관심이거나 성리학 일변도의 사상계에 대한 반성 또는 회의에 의한 것으로 이해돼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성과들이 승려천인신분설, 서민부녀자신앙설, 불교명맥유지설 등의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기존 관념에 따라 불교계의 저변이 취약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해석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³⁹⁾

비정통 한문학 장르로는 일기, 시화, 필기, 폐설, 우언, 야담, 소설 등을 들 수 있다.⁴⁰⁾ 정통 한문학이 문체적 규범이나 성리학 이념에 충실한 '긴장된' 글쓰기라면, 이 비정통 한문학은 '이완된'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당대의 규범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이완된 성격을 가진 장르라는 의미로, 그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통' 문체가 아니기에 문집에 수록된 사례가 드물었고, 필사체 별도로 유통

36) 조선시대 藍輿僮에 대한 이해는 문집에 대한 대표적 오독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남여승의 존재는 조선시대 승려가 사족층으로부터 착취·천시되었다는 데 대한 근거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사실 사족의 가마를 메는 役을 담당한 자는 중·하층 승려였고, 승려를 가마 메는 데 부린 자는 적어도 지방 수령 이상의 고위 사족층이었다. 승려와 사족의 다양한 층위를 고려하지 않은 한편, 문집의 저자가 대부분 고위 사족층이라는 점을 간과해 왔던 것이다. 다시 말해 사족의 문집에 나타나는 고위 사족층과 하층 승려의 특수한 관계를 사족층과 승려층 전반의 일반적인 관계로 잘못 이해해 왔던 것이다.

37) 신승운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생산된 문집은 약 3,000여 종(1인 1문집 기준, 필사본 포함)인데, 추산컨대 이는 조선시대에 생산된 모든 전적의 약 40%에 이른다고 한다. 현전하는 한국문집의 99%가 조선시대 문집이며, 이 중 86%에 이르는 2,600여 종이 조선후기에 생산된 것이다(신승운, 2001, 『유교사회의 출판문화: 특히 조선시대의 문집 편찬과 간행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39, 대동문화연구원, pp.366-371).

38) 김경숙, 1999, 「18世紀 前半 庶孽 文學 研究: 李世愿, 申維翰, 姜栢, 金道洙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유호선, 2006, 『조선후기 경화사족의 불교인식과 불교문학』, 태학사; 이희재, 2006, 「17세기 박세당의 율불회통적 불교관」, 『유교사상연구』 25, 한국유교학회; 최윤정, 2007, 「西溪 朴世堂의 佛敎觀과 佛僧과의 교류 양상」, 『동양고전연구』 27, 동양고전학회; 한편, 불교에 대한 관심이 표명된 이 문집들이 서울에서 인행된 금속활자본이거나, 간행되지 못한 필사본인 경우가 많다는 점은 흥미롭다. 반면 재지사족의 문집 간행이 가장 활발했던 영남 지역의 문집 대부분은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이는 자료의 전승 매체 및 생산 지역에 따라 그 성격과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추후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39)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p.44-45.

40) 박희병, 2008, 앞의 책, pp.62-81.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이 장르의 글들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더 빈번하게 발견된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고위 사족인 김만중이 지은 고전소설 『구운몽』은 불교를 모티브로 하였고, 허균의 『홍길동전』에는 승려가 부패한 기득권층으로 묘사되었으며, 야담·패설 등의 장르를 통해서는 사족의 관점에서 형상화된 당대의 승려상을 살펴볼 수 있다.⁴¹⁾ 그러나 야담, 소설 등이 허구적인 글쓰기인 반면, 일기와 필기는 사실에 입각한 글쓰기라는 점에서 불교사 연구자료로 더 주목된다.⁴²⁾

일기(日記)는 공사 간의 일상을 날짜별로 기록한 글이며, 필기(筆記)는 생각이나 전문을 가벼운 필치로 기술한 글로 잡기, 잡록, 만록, 수록 등으로도 불린다.⁴³⁾ 형식과 주제의 구애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성격의 장르임에 부합하듯, 이 글들에서는 사족의 일상 주변의 불교적 요소, 불교에 관한 그들의 단상과 전문이 종종 발견된다. 이는 여타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일기를 먼저 예로 들면, 17세기말 정시한(丁時翰, 1625~1707)의 『산중일기(山中日記)』는 남인계 성리학자인 그가 삼남 일대의 산수와 사찰을 유람하며 쓴 여행일기로, 당시 사찰과 승려의 일상, 의례, 강학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살펴 볼 수 있다.⁴⁴⁾ 18세

기초 전라도 함평의 재지사족인 이준(李濬, 1686~1740)의 『도재일기(導哉日記)』에서는 사족의 상례에 승려가 불교의례를 병행하고, 사찰을 문중 재실로 삼으며, 관에서 승려를 동원해 천도제와 기우제를 주관하는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⁴⁵⁾ 이는 18세기초 사족층에게 불교가 여전히 큰 종교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그러므로 사족층의 다양한 일기류를 분석하여 그들의 불교관과 종교관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필기에서도 불교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보인다. 불교에 관한 기사가 확인되는 필기류로는, 성현(1439~1504)의 『용재총화』, 유형원(1622~1673)의 『반계수록』, 김만중(1637~1692)의 『서포만필』, 홍만중(1643~1725)의 『순오지』, 이익(1681~1763)의 『성호사설』, 성대중(1732~1809)의 『청성잡기』, 이공익(1736~1806)의 『연려실기술』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들에는 불교와 승려에 대한 원론적 비판, 당대의 불교 현실에 대한 단상, 불교 제도에 대한 견문, 휴정과 유정에 대한 칭송, 승려의 강학·전법·위의에 대한 견문, 승려에 대한 칭송과 속유(俗儒)에 대한 비판 등 불교와 승려에 관한 다양한 기사가 수록돼 있다. 특히 『청성잡기』에는 당시의 전법(傳法) 풍경이 상세히 묘사돼 있는데, 유문(儒門)의 종장(宗匠)도 전법을 통해 일가를 이룬 법사(法師)만 못하다고 한 평가는 흥미롭다.⁴⁶⁾ 이처럼 필기는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는 비교적 형식과 내용의

41) 박상란, 2009, 『조선시대 문헌철학의 승상』, 한국학자료원.

42)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p.45-46.

43) 임형택, 1984, 「李朝前期의 士大夫文學」, 『韓國文學史의 時角』, 창작과비평사, pp.414-418; 정구복, 1996, 「朝鮮朝 日記의 資料의 性格」, 『정신문화연구』 65, 한국학중앙연구원; 엄정섭, 1997,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역사와 현실』 24, 한국역사연구회.

44) 김상현, 2006, 「유생들도 감탄했던 講學의 전통과 그 풍경」, 『불교와 문화』 1-2, 대한불교진흥원; 이경순, 2008, 「1688년 정시한의 팔공산 유람」, 『역사와 경계』 69, 부산

경남사학회.

45) 김영미, 2006, 「18세기 전방 양반의 삶과 신앙: 李濬의 『導哉日記』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82, 한국사학회.

46) 『靑城雜記』 권3, 醒言.

구에 덜 받는 자료적 성격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문집, 일기, 필기 등의 사족 편찬 자료는 해당 자료의 문체론적, 사회적 성격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Ⅲ. 불교계 및 승려의 편찬 자료

1. 불교저술과 간행불서

불교저술은 당대에 찬술된 불교 관련 저술을 의미한다. 교, 선, 정토, 계율 등 불교 사상에 대한 저술, 불교의 역사에 대한 저술, 불교 의례에 대한 저술 등을 포함하며, 단독 저술과 함께 문집 등에 수록된 단편 저술도 포함한다. 불교저술을 통해 당대의 불교사상을 연구하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공통된 방법론이며, 철학사, 사상사의 전개를 고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연구자료임에 분명하다. 동아시아에 전래된 불교는 한역된 경전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교학이 발달했으며, 이는 수·당대에 천태종, 화엄종, 법상종, 그리고 선종 등 여러 종파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를 수용했던 한국의 고대 불교 또한 교학 불교가 발달했으며, 이에 따라 고대 불교는 교학 저술과 관·사찬사서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교학 불교의 난만한 발전 이후, 선종의 성행, 회창 폐불 등으로 인해 불교 교학은 이전과 같은 발전상을 보이지 않았고, 후대로 갈수록 선과 교, 선과 염불, 불·유·도가 융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교학 저술은 후대로 올수록 그 양이 줄어들며, 이는 불

교가 쇠퇴한 근거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학불교의 발달이 철학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주제임은 분명하나, 이 관점만으로 불교사를 평가하는 시각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교학 불교의 전개만으로 불교의 정치·사회·사상적인 기능, 역할, 영향 등을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교가 가장 발달했다고 인식되는 시기의 국가불교적 관점과 교학불교 발달사적 관점으로 후대의 불교를 재단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전하는 조선시대의 불교저술은 불교전적에 대한 주석서류(註釋書類), 선·교·염불의 삼문론류(三門論類), 불·유·도의 삼교론류(三教論類), 불교의례서류(佛敎儀禮書類), 불교사서류(佛敎史書類)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을 듯하다. 주석서류 중에는 조선후기 이력과정(履歷課程) 불전에 대한 다양한 사기류(私記類)의 저술이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력과정은 조선후기 불교계의 보편적 강학체계로서, 근현대에까지 전승된 한국불교의 큰 특징 중의 하나다. 조선후기에는 이력과정 불전에 대한 사기류 저술이 다수 찬술되었으며, 이는 이력과정 불전의 강학과 이해가 불교계의 과업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력과정은 조선후기 불교계의 강학체계임과 동시에 불교를 이해하는 그들의 사상체계와 다름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간화선과 화엄을 정점으로 하는 일종의 교판(敎判) 체계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기류를 통해 이력과정 불전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어떠한가를 밝히는 한편, 이력과정이 언제, 어떻게 형성, 성립, 확산되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조선후기 불교는 선 일변도였을 뿐 교학이 쇠퇴하였다는 인식으로 인해, 알려진 저술들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지 못해 왔다. 그러나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후기 불교계에는 선과 교학, 곧 임제법통과 교학 전통이 공존하였고, 수행 방편으로 염불도 수용되고 있었다.⁴⁷⁾ 표방한 명분과 실제의 현실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후기 불교의 특징이, 조선전기를 거치며 불교 전통이 단절되다시피 상태에서 임진왜란을 계기로 갑자기 발현된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와 조선 초의 불교 전통을 바탕으로 점차 형성돼 왔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⁴⁸⁾ 그러므로 주석서류, 삼문론류, 삼교론류, 불교의례서류, 불교사서류 등의 다양한 조선시대 불교저술을 그 성격에 맞게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 불교사상사 전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간행불전은 불교 사상과 신앙의 전개를 고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료의 하나다. 조선시대에는 많은 양의 불전이 간행되었고, 이는 일찍이 일본인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⁴⁹⁾ 지금도 여러 도서관

과 사찰에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많은 불전이 산적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그간 부진했다. 서지학계에서 그 개별 판본에 대한 연구는 다소 이루어졌으나, 그 사회·문화사적, 불교사적 의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⁵⁰⁾ 그러나 불전의 간행은 그 자체로 특정 불교 사상의 유포를 의미하며, 강학, 신행, 유통 등의 뚜렷한 의도와 목적을 지닌다는 점에서 불교사 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불교저술은 특정 인물의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자료인 반면, 간행불전은 당대 불교계 전반의 사상 경향이나 지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간행된 불교전적은 유교전적에 비해 간기와 간행 참여 인물의 명단을 충실히 수록해 두었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간행시기, 간행지역, 간행주체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당시에는 서적의 간행 자체가 학식, 기술, 경제력 등을 크게 필요로 하는 상층 문화 행태였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불교전적의 간행은 16세기에 급증하였다. 16세기에 이르러 국가와 왕실의 불전 간행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16세기 전반부터 전국의 지방 사찰에서 불전을 다량 간행하기

47) 김용태, 2010, 앞의 책; 이종수, 2010, 앞의 논문.

48)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손성필, 2014, 「虛應 普雨의 불교사적 위상 재검토」, 『한국사상사학』 46, 한국사상사학회; 한편, 고대와 고려시대의 불교사 자료도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전해진 것이라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高麗大藏經』은 조선시대를 거쳐 보존·전승되었고, 『三國遺事』는 조선 중종대에 重刊돼 전승되었다. 반면 『眞心直說』은 조선후기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면서 저자가 知訥로 오인된 사례다(최연식, 2002, 「『眞心直說』의 著者에 대한 새로운 이해」, 『진단학보』 94, 진단학회; 손성필, 2011, 「『眞心直說』 판본 계통과 普照知訥 찬술설의 출현 배경」, 『한국사상사학』 38, 한국사상사학회).

49) 黒田亮, 1940, 『朝鮮舊書考』, 東京: 岩波書店; 江田俊雄, 1977, 『朝鮮佛敎史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江田俊雄은 조선시대에 254종의 불전이 464회 간행되었다고 파악하고, 동시대의 일본과 중국에 비해 불전 간행이 훨씬 활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諺解 佛典이 등장하고 다양한 異版 佛典이 간행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 특

징으로 보았다(江田俊雄, 1956, 「佛書刊行より見た李朝代佛敎」, 『印度學佛敎學研究』 7, 印度學佛敎學會). 이후 조사된 바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간행된 불전 판본은 알려진 것만 900종 이상이다(박상국, 1987, 「有刊記佛書木板本目錄」, 『全國寺刹所藏木板集』, 문화재관리국). 아직 조사·발견되지 않은 판본도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전 간행은 江田俊雄이 지적한 바대로 조선시대의 특징적인 사회·문화현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50) 조선후기의 진언집류와 의식집류 간행이 주목 받은 바 있다(홍윤식, 1988, 「조선시대 진언집의 간행과 의식의 밀교화」, 『한국불교사의 연구』, 교문사; 남희숙, 2004, 『朝鮮後期 佛書刊行 研究: 眞言集과 儀式集을 중심으로』,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시작하였고, 그 간행량은 17·18세기까지 대체로 지속되었다. 16세기 전반의 중종대에 불교 전통이 단절되다시피 하였다는 기존의 불교사 이해와는 달리, 고려, 조선초의 불교 전통은 불전을 통해 계승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전통이 창출되고 있었다. 고려말 불교전통을 대표하는 몽산 덕이 관련 불전인 『몽산화상법어약록』, 『몽산화상육도보설』 등이 16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다가 17세기 전반 이후 더 이상 간행되지 않은 반면, 이력과정의 핵심 교과인 사집의 『선원제전집도서』와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가 16세기 후반에 다량 간행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간행된 것이 단적인 사례다.⁵¹⁾ 한편 16·17세기는 조선 사회의 서적 간행과 보급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한 시기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16세기 불전 간행의 급증은 문화사적 관점에서도 아주 주목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⁵²⁾ 따라서 조선시대 간행불전은 불교 사상과 신앙의 전개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불교계의 사회·문화적 역할과 위상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연구자료라고 할 수 있다.

2. 승려문집과 고승비

승려문집은 승려가 창작한 시문(詩文)을 수집하여 편차(編次)한 것이다. 문집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저술이 아니라 저자가 창작한 시문을 모아 엮은 것으로, 저자 사후 후손이나 문인에 의해 편간되는 것이 일

51)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p.153-162; pp.219-233.

52) 손성필, 2013b, 앞의 논문, pp.371-376.

반적이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초 승려의 문집으로는 의천의 『대각국사문집』과 혜심의 『조계진각국사어록』·『무의자시집』을 비롯한 명승의 문집 10여종이 전한다. 그러나 조선초 기화의 『함허득통화상어록』 이후 편간되지 않다가, 16세기 후반 보우의 『허응당집』·『나암잡저』, 17세기 초반 휴정의 『청허당집』, 유정의 『사명당집』을 시작으로 조선중후기에는 약 80여종의 문집이 편간되었다. 승려문집 편간이 조선중후기 불교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고승의 전기가 행장, 비문 등의 문체로 다수 찬술된 것도 조선중후기 불교의 한 특징인데, 현전하는 조선시대 승려의 행장 약 100여 편, 비문 약 170여 편은 대부분 조선중후기에 찬술된 것이다. 행장은 주로 해당 고승의 문도에 의해 찬술되었으며, 비문은 주로 문도가 행장을 가지고 가 고위 사족층에게 청탁하는 방식으로 찬술되었다. 그러므로 행장과 비문은 이러한 편찬 주체의 성격, 청탁 방식 등을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⁵³⁾

승려문집은 수록된 시문, 행장, 비문을 통해 승려의 행적, 사상, 문과, 문학 등을 중심으로 연구돼 왔다. 그런데 문집은 편간 그 자체로 사회사적 의미를 지니는 연구자료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중후기는 사족의 문집 편간이 성행한 시기였다. 사족은 조선중후기 사회의 지배층으로 부상하였는데, 그들은 ‘유교적 소양의 독서인’이자 ‘현

53) 喚醒 志安(1664~1729)의 행장과 비문을 예로 들면, 제자인 涵月 海源(1691~1770)은 지안의 행장을 찬술하면서 스승을 正法菩薩, 普雨와 함께 제주도에서 입적한 세 성인[三聖] 중의 한 명으로 추송하였다. 그러나 비문 청탁을 받은 洪啓禧(1703~1771)는 해원이 찬술한 행장을 토대로 승려인 지안의 비문을 찬술하고 정법보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면서도 보우에 대한 직접적 언급만은 회피하였는데, 이는 조선후기 사족층의 불교, 승려, 보우에 대한 인식의 실상을 반추하게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손성필, 2014, 앞의 논문, p.108).

관(顯官)의 후손'이어야 했다. 이에 따라 문집은 선조(先祖) 또는 선사(先師)의 도학(道學), 문장, 충절, 계보적 정통성 등을 선양함으로써 후손과 문인의 사회적 지위를 제고·유지·강화하는 기능을 하였다.⁵⁴⁾ 문집은 재지 사족사회의 인정 없이는 간행될 수 없었고, 정치·사회적 이유로 국가나 사족에 의해 훼손(毀板)·화서(火書)되기도 하였으며,⁵⁵⁾ 문집 편간을 계기로 문과와 정과가 형성·분화하기도 하였다.⁵⁶⁾ 이처럼 조선중후기의 문집 편간은 사족 중심 사회의 형성에 따른 현상이었고, 사족층의 정치·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⁵⁷⁾

조선사회에서 사족층 외에 문집을 편간한 유일한 계층이 승려층이었다.⁵⁸⁾ 승려층은 한문 소양을 갖춘 독서인이었으며, 그 계보적 정통성을 중요시하고, 문과를 형성한 집단이었다. 승려문집은 문도에 의해 선사의 '도학'과 문장, 충절, 계보적 정통성을 선양하기 위해 편간되었다. 법어류(法語類)를 중심으로 편차되었던 고려·조선초의 승려문집과는 달리, 조선중후기 승려문집은 다양한 문체의 시와 문을 중심으로 편차되었으며, 이는 형식적으로 사족의 문집과 유사했다.⁵⁹⁾ 집권 사족

층의 서문을 받아 수록했다는 점 또한 특징적이며, 불교가 배척됐다는 일반적 이해와 달리 승려문집이 국가나 사족에 의해 훼손·화서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

고승비 또한 조선중후기 불교의 사회사 연구자료로 주목된다. 고승비는 고승 사후 그 비문을 찬술하여 돌에 새겨 세운 것으로, 신라 말 이래 조선 개국 초에 이르기까지 세워지다가, 조선전기 약 200여 년간은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다 17세기 초중반 유정의 비와 휴정의 비를 필두로 세워지기 시작하여, 조선후기에 약 170여 기의 고승비가 세워졌다.⁶⁰⁾ 그러므로 고승비의 건립 또한 조선후기 불교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후기 고승비는 조선초 이전의 고승비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보인다. 조선 초 이전의 고승비는 고승이 입적한 후 문도가 주청하면 왕명으로 관료에게 비문 찬술을 명하고 탑호를 하사하여 국가가 건립하였던 것과는 달리, 조선후기 고승비는 고승의 문도가 집권 고위관료에게 비문을 청탁하여 건립하였다. 고위관료나 명문장가가 비문을 찬술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비석의 건립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문도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조선후기는 사족층의 문집 편찬과 함께 신도비, 묘갈 등의 묘비 건립과 신도비명, 묘갈명, 행장, 제문 등의 묘도문자(墓道文字) 찬술도 성행한 시기였다.⁶¹⁾ 문집 편간과 마찬가지로, 사족층은 비석 건

54) 신승운, 2001, 앞의 논문; 유탁일, 2001, 앞의 논문; 김성우, 2001, 「密城朴氏 嘯臯公波의 淸道 정작과 宗族 활동」, 『진단학보』 91, 진단학회; 김성우, 2005, 「18~19세기 '지배양반' 되기의 다양한 조건들」, 『대동문화연구』 4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55) 오이환, 1993, 「南冥集 壬戌本の 毀板」, 『남명학연구』 3,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김운수, 1998, 「葛庵集의 庚午板變과 南冥合集의 葛銘 添削本」, 『동방한문학』 14, 동방한문학회; 김향숙, 2010, 「尹宣擧 父子 文集의 刊行과 毀板에 대한 고찰」, 『서지학보』 35, 한국서지학회; 양기정, 2012, 「『禮記類編』의 毀板과 火書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 39, 한국고전번역원.

56) 서정문, 2007, 「朝鮮中期의 文集編刊과 門派形成」, 국민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57)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p.46-49.

58) 조선말기에 이르러 중인, 곧 여향문인의 문집이 편간되기도 하였다(임형택 편, 1991, 『閭巷文學叢書』, 다른생각).

59) 이진오, 1997, 「朝鮮後期 佛家漢文學의 사회적 성격 변화」, 『韓國佛敎文學의 研究』,

민족사; 유호선, 2008, 「조선중기 승가의 記文 연구」, 『청람어문교육』 37, 청람어문교육학회.

60) 손성필, 2012, 「17세기 전반 高僧碑 건립과 조선 불교계」, 『한국사연구』 156, 한국사연구회.

61) 조선중후기의 문집에는 신도비명, 묘갈명, 묘지명, 묘표, 행장, 유사 등의 이른바 묘도문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정순희, 2006, 「古文論과 碑誌類의 상관성 再考」,

립을 통해 선조와 선사의 도학, 문장, 충절, 계보적 정통성 등을 선양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후손과 문인의 사회적 지위를 제고·유지·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비석 건립을 계기로 문파와 정파가 형성·분화하기도 하였다.⁶²⁾ 비석 건립의 자격은 사족의 규범으로써 엄격히 지켜졌는데, 신도비(神道碑)는 실·증직 종2품 이상의 관료에 한해, 묘갈은 실·증직 관료에 한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었다.⁶³⁾ 서리(胥吏), 중인(中人), 서인(庶人) 등은 비석을 세울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신도비명, 묘갈명, 묘지명, 행장 등의 문체로 생애가 서술될 수조차 없었다.⁶⁴⁾ 문집 편간과 마찬가지로, 조선후기의 비석 건립은 사족층의 정치·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상이었던 것이다.⁶⁵⁾

조선 사회에서 사족층 외에 비석을 건립한 유일한 계층이 승려층이었다. 고승비는 선사의 도학과 문장, 충절, 계보적 정통성을 선양하기 위해 문도에 의해 건립되었다. 조선후기 고승비는 사족의 신도비와 그 특징이 유사한데, 조선후기에 건립이 급증하였다는 점, 문중이나 문인에 의해 건립되었다는 점, 고위관료나 명문장가에게 비문을 청탁해 그

권위를 인정받고자 했다는 점, 비문에 찬술동기와 청탁경위에 대한 서술이 두드러진다는 점, 비석이 대좌, 비신, 개석 등의 격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건립된 대부분의 고승비는 영의정, 판서, 대제학 등 종3품 이상의 집권층 고위관료에 의해 찬술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비문 찬술과 비석 건립이 곧 사족 사회를 향한 공표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고위 사족의 고승비문 찬술과 불교계의 고승비 건립에 대한 사족층의 비판은 제기되지 않았다.⁶⁶⁾

조선중후기 승려문집 편간과 고승비 건립 양상에 대한 근래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⁶⁷⁾ 문집 편간과 비석 건립은 불교계 문파 형성의 과정이자 결과였으며, 사족 중심 사회의 형성에 따른 불교계의 대응이었다. 곧 승려문집 편간과 고승비 건립은 그 자체로 조선후기 불교의 형성과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불교사적, 사회사적 의미에 대한 심화 연구가 요구된다.

3. 사찰사적과 사찰문서

사찰사적은 사찰의 내력에 대해 찬술하거나 편찬한 글과 책을 통칭한다. 사적기, 고적기, 사적비문, 중창기, 중수기 등의 글과 함께 종합 편찬서인 사지(寺誌)가 이에 포함된다. 사찰의 내력에 대한 글은 고대 이래 찬술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삼국유사』나 문집 등에 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3,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6, pp.303-304).

62) 서경문, 2008, 「「栗谷碑銘」의 찬술과 개찬 논란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47, 조선시대사학회.

63)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신도비의 건립 자격은 법제로 명문화돼 있지 않았으나, 碩儒라 하더라도 사족층의 규범에 따라 종2품 이상의 품계에 추증돼야 신도비를 세울 수 있었다(조연미, 1999, 「朝鮮時代 神道碑 研究」, 숙명여대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pp.12-14; 김우림, 2007, 「서울·경기지역의 朝鮮時代 士大夫 墓制 研究」, 고려대 문화재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pp.48-51).

64) 이종호, 1996, 「碑誌類 散文의 傳記文學의 性格: 그 敘事原理에 대한 李朝 士大夫層의 認識」, 『한국한문학회연구』 19, 한국한문학회, pp.379-380.

65) 권세가의 신도비 건립을 풍자한 權鐸(1569-1612)의 시 「충주석」에는 조선후기 비석 건립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忠州石」, 『石州集』 卷2).

66) 비문 찬술은 당쟁 격화와 당파 분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는데, 노소분당의 계기가 된 宋時烈의 尹宣舉 묘갈명 찬술(1669, 懷尼是非), 노소당쟁을 유발한 朴世堂의 李景奭 신도비명 찬술(1702)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67) 손성필, 2012, 앞의 논문; 2013a, 앞의 논문, pp.163-174; pp.234-280.

록되거나 인용된 것들이 적지 않게 확인된다. 일찍이 사지도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조선전기 이전의 사지는 전하지 않는다. 현전하는 가장 앞선 사지는 17세기 중반 중관 해안(中觀海眼)이 편찬한 『금산사사적(金山寺事蹟)』, 『화엄사사적(華嚴寺事蹟)』, 『대운사사적(大菴寺事蹟, 竹迷記)』 등이다. 이후 편찬된 사지 중에는 18세기와 20세기 전반에 편찬된 것들이 많으며, 이밖에도 많은 사적기류의 글들이 찬술되어 현전한다.⁶⁸⁾

사찰사적은 각 사찰의 역사 및 역사인식에 대한 연구자료일 뿐 아니라,⁶⁹⁾ 사지에 수록된 여러 기록과 고문서들은 사찰의 사회경제사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큰데, 사찰계(寺刹契), 원당(願堂) 등의 주제 연구에 일부 활용돼 왔다. 그러나 사찰사적은 아직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⁷⁰⁾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찰사적을 종합·정리해 편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그 편찬의 추이, 목적, 성격 등이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적 성격에 대한 규명이 사찰사적을 통한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사찰 및 승려와 관련한 고문서류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되지 못

한 자료다. 사찰문서는 공문서(公文書), 사문서(私文書), 불사·신행문서(佛事信行文書) 등 사찰 및 승려와 관련한 모든 고문서를 포함한다.⁷¹⁾ 1980년대 이후 활성화된 고문서 연구는 조선시대 사회사 연구의 진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다. 그러나 사찰문서는 사찰경제, 사찰계 등에 대한 주제 연구에 일부 활용되었을 뿐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체계적인 정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⁷²⁾ 따라서 도서관과 사찰에 산재해 있는 사찰문서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 수행되어야 한다.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 사찰문서는 인사·행정문서, 재산관리·소송문서, 불사·신행문서로 대별되며, 이는 각각 공문서, 사문서, 불사·신행문서로서의 위상을 가진다.⁷³⁾ 승인(僧人) 인사문서로는 교서, 교지, 첩 등의 승직(僧職) 임명문서가 전하는데, 성종대 이전에는 문·무직과 같은 고신식(告身式)에 의거 작성되다가, 성종대에 승직의 서경(署經)이 폐지되면서 차첩(差帖)으로 발급되었다. 차첩의

68) 허홍식, 1983, 『韓國寺志의 刊行現況과 展望』, 『韓國學 文獻研究의 現況과 展望』, 아세아문화사; 한편 조선시대 여러 사찰의 내력과 현황을 종합한 문헌으로는 申景濬(1712~1781)이 편찬한 『伽藍考』, 正祖의 명으로 편찬된 『梵宇攷』 등이 있는데, 이 도 넓은 의미의 사찰사적류라고 할 수 있다.

69) 사찰사적은 기본적으로 사찰의 역사적 정통성을 선양하기 위해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사찰의 대부분을 원효, 의상, 도선 등이 창건했다고 전하는 것은 이와 관련 있는 듯하다.

70) 사찰사적류를 정리한 편찬서로는 사찰의 비문, 편액, 고문서 등을 수집·수록한 『朝鮮寺刹史料』(1911, 조선총독부), 주요 사지를 조사·영인한 『韓國寺志叢書』(아세아문화사) 등이 있다.

71) 최승희는 발급자와 발급기관을 기준으로, 寺社가 國王, 官府, 私人, 寺社로 발급한 문서를 ‘寺社文書’라고 규정하였다(최승희, 1981, 『韓國古文書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영근은 전래 형태를 기준으로 사찰에 전하는 문서를 ‘寺刹文書’라고 규정하였다(전영근, 2011, 『朝鮮時代 寺刹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전공 박사학위논문). 본고에서는 寺刹이나 僧人이 發給하거나 受給한 모든 문서라는 의미로 ‘사찰문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72) 『朝鮮寺刹史料』에 사찰의 고문서가 채록·정리된 바 있으며, 최근 한국한중양연구원의 『古文書集成』 100집에 직지사과 용문사 소장 고문서가 수록되었다(『古文書集成 100: 金泉 直指寺·醴泉 龍門寺 篇』, 2011, 한국학중앙연구원).

73) 전영근, 2011, 앞의 논문; 전영근의 박사학위논문은 조선시대 사찰문서에 대한 거의 유일하고 선구적인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듯하다.

발급은 조선말기까지 지속되었는데, 예조(禮曹)에서 이 문서의 발급과 인신(印信)을 담당하였다. 행정문서로는 왕이 발급한 감역·사패교지(減役賜牌教旨), 관에서 발급한 완문(完文), 절목(節目), 하첩(下帖), 사격첩(寺格帖), 사찰에서 관으로 발급한 서목(書目), 칩정(牒呈) 등이 있으며, 사찰 간에 발·수급한 공문서로는 물금첩(勿禁帖), 완문, 절목 등이 있었다. 이 문서들을 행용하는 데에 사용된 인신과 차첩도 예조에서 발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찰 문서행정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금산직지사중기(金山直指寺重記, 1776)」가 근래에 소개되기도 하였다.⁷⁴⁾

사찰의 재산관리문서로는 망자 추전을 위해 사찰에 기증한 전답의 헌납명문(獻納名文), 사찰 간의 토지 매매 명문 등이 있고, 승인의 재산관리문서로는 속가(俗家)의 상속에 대한 명문, 승가(僧家)의 상속에 대한 입지(立旨), 사유 전답의 매매 문서 등이 있다. 사찰의 소송문서로는 사족이나 양인과의 산송(山訟)에 대한 등장(等狀), 원정(原情), 소지(所志) 등이 있고, 승인의 소송문서로는 속가 상속에 대한 입지, 소지 등이 있다. 그리고 불사·신행문서로는 권전문, 발원문, 상량문 등등이 있다.

74) 전영근, 2011, 앞의 논문, pp.15-19; 2011, 「해제: 사찰 고문서의 종류와 直指寺·龍門寺 고문서의 자료적 가치」, 『古文書集成 100: 金泉直指寺·醴泉龍門寺 篇』, pp.32-33; 「고문서 자료집 '고문서집성' 100권 돌파」(연합뉴스 기사 2011년 12월 2일); 이러한 사찰의 인사·행정문서들을 통해 볼 때, 조선시대 사찰은 국왕, 관서, 사찰을 상대로 문서행정을 했을 뿐 아니라, 조선후기에도 '관(官)'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후기의 불교정책, 국가와 불교계의 관계와도 부합하는 바이나, 모든 사찰의 성격이 동질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찰의 성격과 층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p.102-105; pp.175-214).

최근에 담양 용흥사(龍興寺)에서 발견된 관부문서(官府文書)를 예로 들면, 1652년(효종3) 관찰사겸순찰사(觀察使兼巡察使) 명의로 발급된 이 문서에는, 승려를 45개의 부류로 세세히 분류하고 이들을 크게 권면해야 할 승려와 경계해야 할 승려로 구분하였다. 이 문서에 따르면 선·교·염불을 수행하고, 국사(國事)에 힘쓰며, 행실이 바른 고승류(高僧類)와 선승류(善僧類)의 승려는 국가로부터 권면되었으며, 승려답지 않고 윤리·사회적으로 행실이 바르지 않은 부류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⁷⁵⁾ 이처럼, 사찰사적은 조선시대 불교의 정치, 사회, 사상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1차 사료로서 가치가 높으므로, 체계적인 조사와 수집, 연구가 시급하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각종 사찰 문서의 종류와 성격을 통해서 보더라도, 포교권 국가탈취설, 승려천인 신분설 등과 같은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기존의 역사상과 실제의 역사 현실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4. 기타: 가사, 건축, 미술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자료로는 그밖에 불교가사, 불교건축, 불교미술 등을 들 수 있다. 불교가사는 17세기 후반 이후 간행, 필사, 구전을 통해 활발히 유통·전승된 국문시가이다.⁷⁶⁾ 가사는 그 자료적 성격을 단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장르인데, 16세기에는 정철의 「성산별곡」,

75) 이종수, 2013, 「1652년 官府文書를 통해 본 효종대 불교정책 연구」, 『한국불교학』 67, 한국불교학회; 승려에 대한 국가의 이러한 이원적인 태도는 『경국대전』 등의 조선시대 법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서 논했듯 보호 대상인 상층 승려는 승인(僧人), 규제 대상인 하층 승려는 승니(僧尼)로 지칭하였다.

76) 김종진, 2002, 『불교가사의 연행과 전승』, 이회문화사.

「관동별곡」, 「사미인곡」 등과 같은 사대부 가사가 주로 창작되었던 데에 반해, 조선후기로 갈수록 향유층과 주제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청빈수행을 주제로 한 침굉 현변(1616~1684)의 「귀산곡」, 「태평곡」, 「청학동가」 등은 사대부 가사와 가까운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이며, 염불(念佛) 및 수선(修善) 왕생(往生)을 주제로 한 「서왕가」, 「회심곡」, 「회심가」, 「인과문」 등은 교화와 포교를 목적으로 한 가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염불가사의 유통이 18세기 이후의 정토저술 찬술, 염불결사 설행, 수행방편인 염불문의 위상 제고 등의 현상과 함께 나타난 것은 주목되는 점이다.⁷⁷⁾ 한편 불교가사가 국문시로서 그 향유층이 폭넓다는 점은, 한문전적의 강학과 한문학 창작이 그만큼 사회 상류층에게만 제한적으로 향유되던 문화양태였음을 반증하게 한다. 그러므로 불교계(佛敎系) 한글 소설(小說), 설화(說話), 무가(巫歌) 등이야말로 조선사회의 불교 신앙 저변을 살피는 데 적합한 자료라는 견해도 경정할 만하다고 본다.⁷⁸⁾

불교건축과 불교미술에 대해서는 미술사학계에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다. 조선중후기에 사찰이 창건 또는 중창되기도 하였음을 지리지와 관찬사서를 통해 살펴보았듯, 이 시기에도 사찰의 전각들은 신축·중창·보수되었다. 현존하는 사찰 전각은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후기에 건축된 것이므로, 이 시기의 전각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⁷⁹⁾ 문집, 사지, 비석에 전하는 중창기, 상량문 등에 의하면,

77) 이종수, 2008, 앞의 논문, pp.174-181.

78) 인권환, 2000, 「조선조 한글 불교산문 연구 서설」, 『한국문학연구』 22,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이와 관련하여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민간의 전승도 채록하였다는 점은 주목된다.

79) 이강근, 1995, 「17세기 佛殿의 再建役」, 『미술사학연구』 208, 한국미술사학회.

사찰 전각은 왕실과 지방관의 지원, 모연 등을 통해 건축되었는데, 금산사 대적광전(1686)과 화엄사 각황전(1702)은 왕실의 지원으로 건축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불교미술은 불교회화, 불교조각 등을 포함하는데, 불화와 불상 등은 조선중후기에도 다수 조성·봉안되었다. 사찰 전각과 마찬가지로 현존하는 불화와 불상은 조선후기에 조성된 것이 많은데, 근래에는 이를 조성한 화사(畫師)와 조각승(彫刻僧)의 계보와 유포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⁸⁰⁾

한편 불교건축과 미술을 미학적 관점 이외의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경국대전』 형전의 금제(禁制)에는 사찰 이외에는 진채(眞彩)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였는데,⁸¹⁾ 이는 건축물의 단청이나 미술품에 사용된 진채를 사찰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보장한 것과 다름없다. 이를 기존의 조선시대 불교 역사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특히 조선후기의 불교건축과 미술은 주로 서민부녀자신앙설, 민중불교론 등으로 설명돼 왔던 듯하나, 사찰의 전각, 불상, 불화가 과연 민중적이거나 서민적인 것이었는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그러므로 여러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시각의 견지와 새로운 역사상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80) 장희정, 2000, 「朝鮮後期 佛畫의 畫師 研究」, 동국대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송은석, 2007,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81) “寺刹外用眞彩者”(『經國大典』 및 『大典會通』 卷5, 刑典 禁制).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 논해 보았다. 편찬 주체에 따라 국가 및 사족 편찬 자료와 불교계 및 승려 편찬 자료로 대별하고, 해당 자료를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 논한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되 그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해석해야 함을 논한 한편, 이러한 불교사 자료의 종류와 성격에 대한 개관적인 분석만으로도 기존의 조선시대 불교사 인식에 여러 한계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찬편년사서는 국가의 불교정책에 대해 살필 수 있는 자료로, 정책의 목적과 배경, 대상, 시행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당대의 정치 현안에 대한 최고위 관료의 정책 논의 기사이므로, 불교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논지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를 분석해 보면 조선시대 불교정책의 목적과 대상은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모하였고 그 노선을 두고 정치세력 간에 갈등하기도 하였다. 불교계 전반을 대상으로 한 불교정책이 일관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조선후기의 경우 『실록』 뿐 아니라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 등도 불교사 연구에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전, 호적, 양안, 의례 등의 관찬 자료들도 국가와 불교계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나 아직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법전과 호적 등을 통해 볼 때 조선시대에는 여러 신분과 층위의 승려가 있었으며, 국가는 대체로 이들을 이원적으로 통치해 법제적으로 보호하기도 규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승려가 국가의 탄압으로 천인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일반적 이해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관·사찬 전국지리지와 읍지는 국가나 사족이 지방 통치를 위해 편찬한 자료인데, 시기별로 각 지역의 주요 사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선시대에는 전 시기에 걸쳐 약 1,500개소 이상의 사찰이 있었으며, 사찰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제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사찰에 따라 폐허화되거나 신축되기도 하고, 암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사찰은 서원·사우보다 수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 사회의 주요 경관이었다. 조선 중후기 사회의 지배층인 사족은 문집, 일기, 필기 등의 많은 자료를 양산해 냈다. 사족의 한문 글쓰기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직결된 공적 행위라는 점에서 불교에 관한 풍부한 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관심이 표출된 다소 간의 자료가 현존하고, 특히 일기와 필기류는 상대적으로 문체론적 제약이 약한 편이므로, 이 자료들을 통해 사족 중심 사회에서의 불교 인식과 불교계의 현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불교저술은 당대의 불교사 연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조선시대의 불교저술은 주석서류, 삼문론류, 삼교론류, 불교의례서류, 불교사서류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을 듯한데, 특히 이력과정 불전에 대한 다양한 사기류의 편찬은 조선후기 불교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나 아직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불교사상은 교학이 쇠퇴하고 선 일변도였다는 인식에 따라 불교저술에 대한 연구도 부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교학이 이전과 같은 발전상을 보이지 않은 것은 조선만의 현상이 아니었고, 임제 법통의 명분과 교학 전통의 현실이 공

존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 이 시대 불교 사상의 특징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조선시대에는 많은 양의 불교전적이 간행되었고, 현재 여러 도서관과 사찰에 산적해 있다. 불교전적의 간행은 16세기에 급증하여 17·18세기에도 지속되었음이 근래에 밝혀졌는데, 이 때 간행된 불전의 종류를 보면 고려, 조선초의 불교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통을 창출하고 있었다. 이처럼 간행불전은 당대 불교계 전반의 사상 경향이나 지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나 지금까지 그 연구가 부진하였다.

승려문집과 고승비는 조선후기 승려의 행적, 문학, 사상 연구를 위해 비교적 많이 활용돼 온 자료다. 그러나 승려문집 편간과 고승비 건립이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 급증하였고, 이 현상이 불교계 문과 형성의 과정이자 결과였으며, 사족층의 문집 편간과 신도비 건립이 성행하는 현상과 함께 나타났다는 점은 최근에 와서야 밝혀졌다. 문집 편간과 비석 건립은 사족층 이외에는 거의 승려층에게만 용인된 것이었으며, 승려문집 편간과 고승비 건립 자체가 사족 중심 사회의 형성에 대응하여 불교계와 각 문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었던 것이다. 사찰사적과 고문서는 풍부한 내용을 담은 불교사 자료이지만 그 수집과 정리조차 아직 미비하다. 다양한 사찰사적의 편찬도 조선후기의 특징적 현상이었던 듯하므로 면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며, 사찰·승인과 관련하여 발급된 각종 공·사문서는 국가와 불교계의 관계, 불교계의 사회경제적 실상을 밝히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이므로 연구가 시급하다. 그밖에 불교가사, 불교건축, 불교미술 등도 주요한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국문학, 미술사학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학, 불교학 등의 관점에 따라 다각도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의 종류와 성격만을 통해 볼 때도, 다카하시의 여러 담론을 비롯한 기존의 조선시대 불교사 인식은 신중히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불교는 국가의 전면적인 제재를 받았다고도, 사회적으로 무력했다고도, 사상 전통이 단절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불교정책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불교계는 조선 사회의 일부로서 사회 변화에 대응하였고, 기존 불교 전통을 능동적으로 계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다양한 자료를 통한 실증적 연구와 균형 있는 시각을 통해 새로운 조선시대 불교의 역사상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한편, 기존의 조선시대 불교 역사상이 근대기에 형성된 배경과 양상에 대한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가 불교 사상의 전개 뿐 아니라 불교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주요 자료

- 『古文書集成』(한국학중앙연구원)
- 『大典會通』(1996, 한국법제연구원)
- 『新補受教輯錄』(2000, 청년사)
- 『輿地圖書』(1973, 국사편찬위원회)
- 『朝鮮寺刹史料』(1911, 조선총독부)
- 『朝鮮王朝實錄 佛教史料集』(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 『韓國高僧碑文總集: 朝鮮朝· 近現代』(2000, 가산불교문화연구원)
- 『韓國文集叢刊』(한국고전번역원)
- 『韓國佛教全書』(동국대출판부)
- 『韓國寺志叢書』(아세아문화사)

2. 주요 논저

- 高橋亨, 1929, 『李朝佛教』, 寶文館
- 김상현, 2002, 「朝鮮佛教史 研究의 課題와 展望」, 『불교학보』 39,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 김용태, 2010,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임제법통과 교학전통』, 신구문화사
- 김용태, 2013, 「조선시대 불교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불교학』 68, 한국불교학회
- 손성필, 2013, 「16· 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동국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손성필, 2013, 「조선시대 승려 賤人身分說의 재검토: 高橋亨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보조사상』 40, 보조사상연구원

- 손성필, 2014, 「虛應 普雨의 불교사적 위상 재검토」, 『한국사상사학』 46, 한국사상사학회
- 이병희, 1997, 「朝鮮時期 寺刹의 數的 推移」, 『역사교육』 61, 역사교육연구회
- 이종수, 2010, 「조선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 三門修學을 중심으로」, 동국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종수, 2013, 「1652년 官府文書를 통해 본 효종대 불교정책 연구」, 『한국불교학』 67, 한국불교학회
- 장경준, 2006,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 배경과 그 양상」, 『대동문화연구』 5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 기타 여러 참고문헌은 각주 참조.

On the Historical Resources from Joseon Dynasty Buddhism

SOHN, Seong—phil

Researcher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The amount of Buddhist historical materials from the Joseon dynasty is much greater than in any previous period. However, studies on these materials have thus far not made much progress. Instead, the historical view of Buddhism in the Joseon dynasty, forme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by such authors as Takahashi, has continued to predominate.

In this paper, Buddhist historical materials of the Joseon dynasty are classified into those written by the government and the literati (the *sajok*), and those written by the Buddhist community and monastics.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aterial are catalogued: for example, official chronological historiographies, legal codes, household registers, geographical gazetteers, literary collections and diaries of the literati, Buddhist writings and published scriptures, literary collections of monastics, memorial steles for the renowned monks, temple documents, and so on.

I conclude that it is hard to maintain the view that Buddhism in the Joseon dynasty was suppressed in a consistent manner, powerless in society, and discontinued in tradition. Therefore, Takahashi's argument and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Buddhism in the Joseon dynasty needs to be reconsidered.

Keywords

Buddhist historical materials, Buddhism in the Joseon dynasty, government, literati, Buddhist community, monastics, Takahashi Toru

✎ 투고일자 2014.5.1 | 심사일자 2014.5.24 | 게재확정일자 2014.6.16